

6월의 기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잠언 9장 10절-11절>



- 1.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 (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김태승, 박예림, 이시은,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영혼을 치료하는 위로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니콜라스 윌터스토프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등산하기를 좋아해서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그 산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외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 교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외아들을 죽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라고 울부짖으며 밤낮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다시 아들이 보고 싶어서 땅을 치고 울며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왜 내 외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까?"라고 통곡하는데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환상이 보이더라. 어느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두고서 자기처럼 땅을 치고 울고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당신도 나와 같군요"하고 쳐다봤더니 다른 아닌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울면서 자기를 보시고 "너도 아들이 죽어서 슬프지?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더라. 그 후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좋은 일만 보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당하는 슬픈 일에도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며 자기의 슬픔을 치료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본 후,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는 무관하게 하늘에서 고고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고통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면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2년 미국 시애틀 성회"

2002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세계선교대회(Global Strategy Conference)가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되었는데, 성회의 가장 큰 목적은 각 나라별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첫날 개막 설교는 DCEM(David Cho Evangelistic) 총재 조용기 목사가 맡게 되었다.



당시 세계선교대회에는 전세계 40여 개국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이스라엘, 아프리카, 일본 등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총재 조용기 목사는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교회 성장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선언했다. 당시 설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셀 제도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정착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하는 시간이었다.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유교적 영향으로 여성들이 셀 리더가 되어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쳤지만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확신을 주셔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셀 제도가 정착되자 교회가 성장되고 목회자의 짐을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을 넘어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범 우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참석한 교회지도자들은 셀 제도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셀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보겠다는 지도자도 있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당시 성회를 통해 시애틀의 젊은이들과 성도들 및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사회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증거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처음 셀 제도를 정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조목사는 셀 제도가 교회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며 이것은 한국적 상황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12년 인도네시아 성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220개국 10만 기도 용사들이 모인 가운데 2012년 5월 17일 세계기도대성회(WPA 2012)가 자카르타에 위치한 봉 카르노 메인스타디움과 쉐넬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당시 성회는 인도네시아 교계 연합과 한국 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주관했다.

년 만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세계기도대성회는 한국의 기도 운동과 성령운동이 전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발(發) 기도 운동'이 다시 전 세계를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대성회였다. 세계 최대 모슬렘 국가에서 열린 개신교행사인 만큼 테러의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삼엄한 감시와 철통같은 보안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보건복지부 아궁 라소노(Agung Laksono)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7시간동안 인도네시아 전역과 세계 동시에 기도 랠리가 펼쳐진 세계기도대성회는 각 국가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기도회는 인도네시아 371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CBN 공영TV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방송되고, 인터넷과 위성을 통해 생중계되어 전세계 수백만의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했다. 2012년 세계기도대성회는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한 성령 축제요, 기도 축제로 개신교 역사에 기록되었다.

주강사로서 10만 관중의 환호 속에 등단했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성령과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1984년 한국에서 첫 성회가 열린 이후 28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마귀가 주는 두려움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감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버림 당할까 하는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큰 틈 사이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오랫동안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그 삶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편지 중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하소연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앉아서도 두렵고, 서서도 두렵습니다. 일이 안 될 때도 두렵고, 일이 잘 되어도 두렵습니다. 불행이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일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것은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마귀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을 것을 무력화시켜서 마귀에게 저항할 힘을 잃게 만든 다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의 파장을 개가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물고 찢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마귀가 와서 물고 찢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평안을 품은 가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2.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마귀를 대적하고 가슴속에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요한 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가슴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낫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시 91:1-2)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미 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숨기고 깃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

3.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부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남편이 큰 회사

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만 회사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일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활이 어려워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에 처하게 되자 “이왕 죽을 바에는 마지막으로 순복음교회에 가서 운명을 결단 내리자.”하고 저희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우리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에 넘치는 말을 하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위해 평범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편지에 보니까 그때 내 기도 소리는 하나님도 안 들리고 예수님의 차랑차랑한 목소리의 이와 같은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뚜렷이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오랫동안 잘 견뎠다.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고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네게 상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외국 기업에서 찾아와 30만 달러어치 물건을 수출 계약을 맺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과 믿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의 그릇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속에 꿈과 희망과 평안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용서와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성령 충만과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가난이 청산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슴에 품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5월의 성회들”



1987년 5월 호주성회



2001년 5월 미국 LA 성회

개최 일자	성회명	개최 일자	성회명
1975년 05월	미국 LA 순복음 교회	2001년 05월 25일 ~ 31일	조용기 목사 초청 2001 영권회복집회(미국)
1978년 05월 03일(7일간)	스웨덴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성장 세미나	2002년 05월 04일 ~ 06일	미국 시애틀 국제선교대회
1980년 05월 12일 ~ 24일	일본 제2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및 조용기 목사 초청 오사카 부흥성회	2002년 05월 15일 ~ 16일	영국 런던 청년후학생들과 한인들을 위한 성회
1981년 05월 02일 ~ 08일	영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 핀란드 성회	2005년 05월 18일 ~ 19일	미국 교회성장과 성숙을 위한 컨퍼런스 및 부흥회
1983년 05월 16일 ~ 28일	미국 서부 및 중부지역 교회성장 세미나	2005년 05월 22일	미국 하와이(마오이) 25주년 기념예배
1984년 05월 13일 ~ 26일	미국 국제 교회성장 목회자대회	2009년 05월 05일	조용기 목사 초청 교단창립 60주년 기념선교대회(일본)
1985년 05월 14일	조용기 목사 미주 성회(미국)	2009년 05월 06일	일본 동경 춘계축복성회
1987년 05월 13일 ~ 16일	조용기 목사 초청 호주 대성회	2010년 05월 26일 ~ 30일	2010 CGI & 아시아 컨퍼런스(싱가포르)
1988년 05월 21 ~ 23일	퀵린 그리스도교회 교회성장 세미나(독일)	2011년 05월 04일	2011 동일본치유대성회
1989년 05월 09일 ~ 11일	조용기 목사 초청 유럽지역 독일 대성회	2012년 05월 16일 ~ 17일	인도네시아 마라카르 벨렐교회 축복성회 세계기도성회(WPA2012)
1994년 05월 11일 ~ 14일	노르웨이 오슬로 성령 축제	2013년 05월 09일 ~ 10일	생명의 강 컨퍼런스(호주 멜버른)
1998년 05월 04일	98 서일본 예수 페스티벌	2014년 05월 06일	2014 동경지저스페스티벌(일본)
2000년 05월 08일 ~ 14일	호주 시드니 성회	2015년 05월 06일	일본 순복음동경교회 축복대성회
2001년 05월 01일 ~ 02일	요르단 하비스트 파워 컨퍼런스	2016년 05월 06일	일본 순복음동경교회 39주년 기념 및 축복성회



2001년 5월 요르단성회



2010년 5월 동경성회